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11. 4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 대테러전문가, '인셀(Incel)*' 확산에 따른 테러위협 경고
 - 10.30 英 「브레이스」 교수는 인셀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일 1천건 이상 여성혐오·남성 우월주의 성향 게시물이 공유되고, '14년 이후 50건 이상의 인셀 관련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며 테러 발진 가능성 경고
 - * '비자발적 독신주의'(Involuntarily Celibate)의 약자로 '14년 美 총격 살해범(사망 6명) 「엘리엇 로저」가 자신의 구매를 거부한 여성에게 분노를 표시하며 사용
- EU, 이란 혁명수비대 '테러단체' 지정 검토
 - 10.31 獨 「베어북」 외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EU는 히잡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에 강경 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(IRGC)를 '테러단체'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
 - * EU는 9.11테러 이후 同年 12월부터 정기적으로 테러단체나 개인을 지정해 제재 중이며, 대상에 포함될 경우 EU회원국 內 해당 단체·개인의 자산 동결

미주

- 美, 소말리아 정부측에 현지 파병 자국군의 드론작전 규제 완화 요청
 - 10.27 언론은 소말리아 新정부가 알샤바브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가운데, 450명의 병력을 현지에 再배치한 미국이 최근 同 테러단체를 겨냥한 드론공격 규제 완화를 주재국 측에 요청했다고 보도
- 美, 「펠로시」 하원의장 남편 자택서 피습
 - 10.28 美 경찰은 이날 새벽 「펠로시」 하원의장 남편이 자택에 침입한 「데이비드 데파페」(42세)에게 망치로 습격을 당해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었으며,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였다고 발표
 - * 同人은 SNS에 美 대선 부정선거 등 극우 음모론 게시물과 혐오발언 집중 게시

아 · 태평양

○ 인도, 국제 테러 대응 기금 50만 달러 UN 기부

- 10.29 인도 외무장관은 뉴델리에서 열린 'UN 테러대책 위원회' 특별 회의에서 드론 등 新기술을 악용한 테러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 강화를 위해 UN 테러대책 기금으로 5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발표
- * UN은 10.28~29 인도 뉴델리에서 '테러 新기술 대응'을 위한 특별회의 개최

○ 호주, ISIS 전투원 배우자·자녀 18명 송환

- 10.31 濠 정부는 과거 ISIS 전투원과 결혼 후 시리아 난민캠프에서 생활하던 부인(4)·자녀(14) 등 18명을 송환하였으며, 성인 여성들은 위치 추적장치 부착·야간 통행금지·정기 모니터링 등 엄격히 통제 예정
- * 야당은 테러조직원과 결혼·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조치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

○ 법원, 테러자금 송금 우즈베키스탄人 징역형 선고

- 11.1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테러단체에 총 5회에 걸쳐 71만원을 송금한 불법체류 우즈베키스탄人(23)에 대해 「테러자금금지법」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
- * 법원은 '실제 금액이 많지 않지만, 횡수가 적지 않다'며 양형 이유를 설명

중 동

○ 이란, EU 관계자 및 관련단체 다수 '테러선동' 혐의 제재 결정

- 10.26 언론은 이란 외무부가 EU 관계자 12명과 관련단체 8개에 대하여 테러선동 등 이유로 제재하기로 결정, 이에 따라 이란 內 이들의 자산을 몰수하고 입국 및 비자발급을 금지할 것이라고 보도
- * 同 조치는 이란이 EU 관계자들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며, 최근 이란 內 시위진압을 비판해 온 언론사와 이란 제재를 지지해 온 단체 등이 주로 포함

튀르키예, 이스탄불 탁심광장 자살 폭탄테러

- '10.10.31, 09:00경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중심부에 소재한 탁심광장에서 치안 유지차 대기중인 경찰버스를 겨냥한 자살 폭탄테러로 1명 사망·32명 부상
* 경찰관 15명, 민간인 17명, 테러범 1명
- 쿠르드노동자당(PKK)*의 분파인 쿠르드자유매파(TAK)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공격 배후를 자처하며, 경찰 상대 '보복활동'임을 주장
* 터키 남동부 지역에서 쿠르드족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는 무장단체
- 경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, 테러범이 광장에 또 다른 폭발물을 설치했으나 작동하지 않아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
- 한편, PKK는 자조직의 이번 사건과의 무관성과 내년도 튀르키예 차기 총선까지의 휴전선언 준수의지를 강조하는 한편, 오히려 TAK의 행위를 비난하며 공격 중단을 촉구

< 쿠르드족 분리운동 >

- (쿠르드족) '중동의 집시'라 불리며 국가 없이 중동 산악지대에 흩어져 거주중으로, 고유 문화·언어·사회구조를 유지한 3,500여만명 규모의 단일 민족
* 주요 거주지 : 튀르키예(1,000만명), 이란(500만명), 이라크(300만명), 시리아(200만명)
- (배경)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지역을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면서 쿠르드족의 독립을 보장하는 세브르 조약(1920년) 체결되었으나, 3년 뒤 튀르키예의 반발로 조약은 파기되고, 임의적인 영토설정으로 주변국으로 흩어져 흡수
- (최근동향) 튀르키예의 쿠르드노동자당(PKK), 시리아의 인민수비대(YPG), 이라크의 페슈메르가(Peshmerga) 등의 분리운동 무장단체로 개별 국가내에서 활동중이며, 이라크戰·ISIS 격퇴전 등 최근 지역 혼란을 틈타 이라크·시리아로부터 일정 부분 자치권을 확보하였으나,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분리운동에 대한 공격 강화추세